

제 목: 2011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0월 CBSI 65.4, 1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 중견, 중소기업체 지수 모두 하락 -

- 2011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8.4p 하락한 65.4를 기록함.
 - 이로써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은 전월인 9월에 비해 큰 폭으로 악화되었음.
 - CBSI는 지난 7월과 8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2개월 연속 하락(7월 3.0p, 8월 2.2p 하락)했다가 9월 들어서는 소폭(4.9p) 상승했음.
 - 그러나, 10월 들어 CBSI는 다시 8.4p나 하락하며 2010년 9월(62.6 기록)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통상 10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주택을 비롯한 민간부문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공공공사 발주도 계속 부진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3.6p 상승한 69.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3.6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0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전망 지수 자체는 69.0으로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 중소기업체 지수가 모두 하락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수준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9월에는 전월비 23.1p 상승하며 CBSI 상승을 주도했는데, 10월에는 다시 전월비 15.4p 하락한 84.6을 기록해 체감 건설경기 수준이 재악화됨.
 - 지난 9월에 전월비 1.9p 하락한 73.1을 기록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10월에도 전월비 5.1p 하락한 68.0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지난 7월 이후 9월까지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던 중소기업체 지수는 10월에도 전월비 3.9p 하락한 40.0을 기록해 4개월 연속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이는 최근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급감에 따라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3.9, 96.7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3.9, 60.9를 기록해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최근 환율인상 등으로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1.7, 83.4를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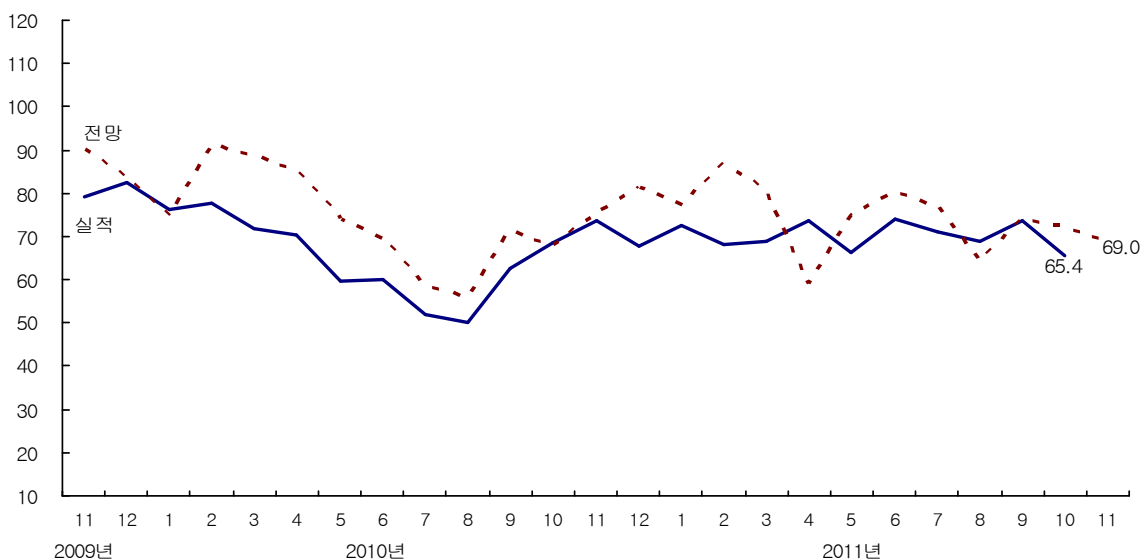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전월비 8.4p 하락한 65.4, 13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2011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8.4p 하락한 65.4를 기록함.
 - － 이로써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은 전월인 9월에 비해 큰폭으로 악화되었음.
 - － CBSI는 지난 7월과 8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2개월 연속 하락(7월 3.0p, 8월 2.2p 하락)했다가 9월 들어서 소폭(4.9p) 상승했음.
 - － 그러나, 10월 들어 CBSI는 다시 8.4p나 하락하며 2010년 9월(62.6 기록)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 통상 10월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CBSI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주택을 비롯한 민간부문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공공공사 발주도 계속 부진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 중소기업체 지수가 모두 하락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수준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9월에는 전월비 23.1p 상승하며 CBSI 상승을 주도했는데, 10월에는 다시 전월비 15.4p 하락한 84.6을 기록해 체감 건설경기 수준이 다시 악화됨.
 - 지난 9월에 전월비 1.9p 하락한 73.1을 기록했던 중견업체 지수는 10월에도 전월비 5.1p 하락한 68.0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지난 7월 이후 9월까지 3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던 중소기업체 지수는 10월에도 전월비 3.9p 하락한 40.0을 기록해 4개월 연속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이는 최근 공공공사 발주물량의 급감에 따라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로 판단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0년 12월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7.9	72.4	68.1	69.0	73.8	66.3	74.1	71.1	68.9	73.8	65.4	72.2	69.0	
규모 별	대형	76.9	92.9	78.6	92.3	107.7	76.9	83.3	84.6	76.9	100.0	84.6	92.3	76.9
	중견	70.4	79.2	73.1	76.9	58.3	66.7	73.9	72.0	75.0	73.1	68.0	68.0	80.0
	중소	54.4	40.7	50.0	32.7	51.8	53.6	63.6	54.4	52.6	43.9	40.0	53.6	47.3
지역 별	서울	75.3	90.5	79.1	82.0	87.9	68.6	77.4	80.2	78.4	91.6	74.1	84.3	76.5
	지방	56.7	46.2	51.2	49.7	53.3	62.9	71.2	57.2	54.6	47.5	52.7	54.7	58.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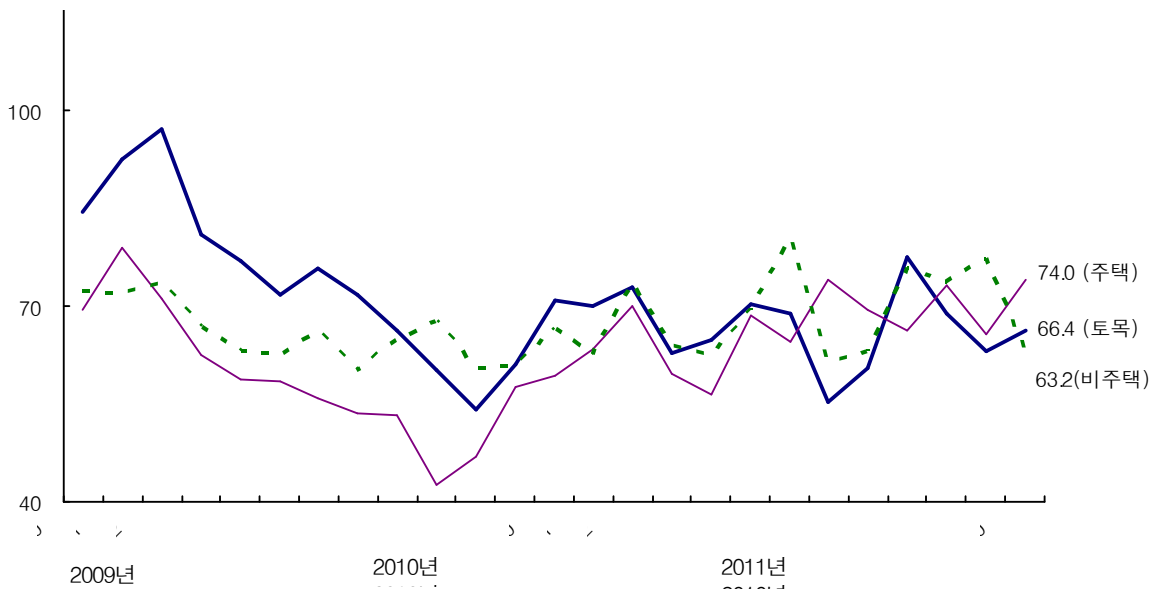
- 한편,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3.6p 상승한 69.0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3.6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1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0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전망 지수 자체는 69.0로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10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7.5p 하락한 74.1로 부진하였으며, 지방업체 또한, 지수가 52.7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함.
 -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9월 대형업체 지수 상승으로 전월보다 13.2p 증가한 91.6을 기록, 8개월 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하였음. 그러나, 10월에 다시 17.5p 급락하면서 74.1을 기록, 지수가 두달 만에 다시 70선으로 돌아함.
 -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9월 47.5로 부진하였으나, 10월에 통계적 반등으로 5.2p 상승한 52.7을 기록함.
 - － 비록 전월보다 지수가 상승하였어도 여전히 50선에 불과해 여전히 경기가 침체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

10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12.1p 감소한 61.4기록

- 10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2.1p 감소한 61.4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 공사 물량지수는 지난 9월 3.7p 증가해 3개월 연속 70선을 지속하였음.
 - － 그러나, 10월 들어 4개월 만에 다시 60선으로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가장 부진한 61.4를 기록함.
 - － 결국, 2010년 8월 52.6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여름철과 겨울철 비수기 시점 수준 미만으로 지수가 하락하였음.
 - － 이는 지난 8~9월 미국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10월 비주택 건설물량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경기에 민감한 공장 및 창고 등의 비주택 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로는 토목과 주택 물량은 전월보다 증가하였으나 비주택물량만 10.0p 이상 급락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10월 들어 3.2p 증가한 66.4를 기록, 지수가 지난 8월과 9월 2달 연속 하락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됨.
 - 주택 물량지수도 전월보다 8.4p 증가해, 올 들어 가장 양호했던 5월(74.0)과 동일한 수치인 74.0을 기록함. 뚜렷히, 주택물량이 회복 되었다기 보단 한달 또는 두달 간격으로 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지속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9월보다 13.9p나 감소한 63.2를 기록함. 여름철 비수기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70선 중반을 유지해 비교적 긍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불안 등 대외 요인으로 물량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가 전월보다 25.0p 감소해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중견과 중소 업체 또한 전월보다 각각 5.1p 5.0p감소하였음.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5.0p 감소한 75.0을 기록함. 토목과 주택 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15.4p, 7.7p 증가하였으나, 비주택물량이 전월보다 15.4p 감소하였음.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9월보다 5.1p 감소한 68.0을 기록함. 공중별로는 주택 물량이 전월보다 15.2p 증가했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10.4p, 18.3p 감소했음.
 - 한편, 중소기업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5.0p 감소한 37.9를 기록함. 공중별로 모든 물량이 30~40선에 불과해 물량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공중별로 전월대비 비주택 물량의 감소(-7.3p)가 가장 컸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1.4	75.0	68.0	37.9	68.3	51.2
	전망	69.1	76.9	80.0	47.4	77.4	56.9
토목	실적	66.4	84.6	69.6	41.4	75.7	52.8
	전망	65.0	69.2	78.3	44.8	69.0	59.2
주택	실적	74.0	100.0	79.2	37.5	88.0	53.6
	전망	72.6	92.3	75.0	46.8	86.6	51.2
비주택	실적	63.2	84.6	62.5	38.9	72.8	49.5
	전망	71.5	92.3	79.2	38.5	85.7	50.5

주 : 실적은 2011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0.7p 감소한 68.3을 기록하였음. 지방업체의 물량지수도 51.2로 부진하였음.
 - 10월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20.7p 감소해 두달만에 다시 60선인 68.3으로 하락하였음.
 - 한편,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지난 9월(50.7)과 마찬가지로 10월에도 50선인 51.2로 부진하였음.

- 2011년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월 실적치보다 7.7p 증가한 69.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비록 10월보다 물량은 증가할 것이나, 지수가 여전히 60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11월에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토목 물량지수는 10월 실적치보다 1.4p 감소한 65.0을 기록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
 - 주택 물량지수는 10월보다 1.4p 감소한 72.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다시 물량이 소폭 하락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0월보다 8.3p 증가한 7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10월의 감소폭이 그만 큼 컸던데 따른 반등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상황 매우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3.9, 96.7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3.9, 60.9를 기록해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최근 환율인상 등으로 자재비 상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1.7, 83.4를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1.7	92.3	80.0	71.2	83.8	78.8
		전망	77.2	92.3	72.0	65.5	80.6	72.4
	자금조달	실적	83.4	100.0	80.0	67.8	87.5	77.5
		전망	81.0	100.0	72.0	69.0	83.8	77.1
인력	수급	실적	93.9	100.0	100.0	79.7	100.0	85.0
		전망	89.1	92.3	96.0	77.6	93.1	83.4
	인건비	실적	83.9	92.3	96.0	60.3	93.6	69.9
		전망	84.3	92.3	100.0	56.9	93.6	70.7
자재	수급	실적	96.7	107.7	96.0	84.5	98.6	94.0
		전망	96.1	107.7	96.0	82.8	98.6	92.8
	비용	실적	60.9	84.6	52.0	43.1	65.3	54.2
		전망	69.3	92.3	64.0	48.3	76.4	58.8

주 : 실적은 2011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